

누가복음 15:11-32에는 복음서의 비유 중 가장 긴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오늘 부활 주일 본문의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 비유를 해석하고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 주고 싶었습니다.

본문에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1세기 유대인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한없이 주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우선 아버지는 유산을 요구하는 아들에게 미리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1세기 유대 문화에서는 이런 요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둘째 아들은 단순한 유산을 요구한 것을 넘어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아버지는 자신의 명예를 깎아내린 아들을 향해 자신의 권위와 명예를 세워야 했습니다. 당시의 아버지들은 아들을 때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아주 심하게 체벌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모인 곳에서 아들의 자격을 뺏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선언하고 장례를 치를 수도 있었습니다.(신명기 21:18~21, 케짜짜 의식)

그런데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들들 각자에게 살림을 나눠 줍니다.

* 돌아온 아들에게 또 주는 아버지

주는 아버지의 모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먼 나라에 가서 모두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달려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게 합니다.

신발은 자유인의 상징, 제일 좋은 옷은 명예를 회복시키고, 반지는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 하는 신발, 제일 좋은 옷, 반지는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분, 아버지의 명예, 아버지의 권세를 아들에게 막 줍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뿐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자신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의 신분과 명예와 권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도대체 오늘 비유의 아버지는 왜 이렇게까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줄까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20)

오늘 비유의 아버지가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그렇게 바랄까요? 아들을 사랑하기에 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입니다. 오늘 비유의 아버지의 진정한 소원은 아들과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1~32절)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4/21(월)	4/22(화)	4/23(수)	4/24(목)	4/25(금)	4/26(토)	4/27(주일)
삼하 14-15	삼하 16-18	삼하 19	삼하 20-22	삼하 23-24	왕상 1	왕상 2-3

Q T

이번 주 QT 말씀

4/21(월)	4/22(화)	4/23(수)	4/24(목)	4/25(금)	4/26(토)	4/27(주일)
민 14:1-10	민 14:11-25	민 14:26-38	민 14:39-45	민 15:1-21	민 15:22-31	민 15:32-41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지난 주 말씀 혹은 한주간의 큐티 말씀을 통해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세요.

2.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은 나누어 주세요.